

## 1970년대 대중소설의 '육체' 담론

김현주

### 국문초록

본고는 대중소설을 '밖'에서 비판하고자 하는 시도가 아니라, '안'에서 객관적으로 고찰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따라서 본고는 1970년대 대중소설이 본격적인 대중문화의 소산으로써, 지배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산과 수용의 상호 영향에 의해서 그 기능이 조정되는 텍스트라는 점에 주목한다. 그 결과 1970년대 대중소설 중 지배 이데올로기와 저항 이데올로기가 갈등하고, 그것을 조정하는 타협적 균형의 원리를 보여주는 텍스트라는 사실을 밝혀내고자 한다.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대중소설 텍스트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자본주의 체제가 결합되면서 여성의 육체가 대상화되고 그로 인해 성이 상품화된다. 따라서 텍스트는 관능적 육체와 관능적 행동을 보는 즐거움과 더불어 보여지는 즐거움을 향유할 수 있는 문화적 경험 공간이 된다. 사회적 관습에 의한 '쾌감 불안'으로부터 해방된 감정을 보다 확장하기 위해서 텍스트는 대중 서사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1970년대 대중소설은 타협적 균형의 원리를 대중 서사 방식의 원리로 취하고 있다. 다시 말해 1970년대 대중소설은 사회적 규범이나 가치에 의해서 거부되는 여성인 창녀나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을 성치녀로 구제하거나 사회로부터 배제하는 방식으로 타협적 균형을 모색한다.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해 텍스트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는 문화적 경험공간이 된다. 그와 더불어 가부장적인 여성관 나아가 성적 에너지를 공적 담론

으로 방출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전통적인 윤리관을 해체할 가능성을 지닌 새로운 문화적 경험 공간이 된다.

• 핵심어 : 육체, 성, 쾌감 불안, 반복, 타협적 균형, 문화적 경험공간

## 1. 성 담론을 구성하는 ‘육체’

성sexuality<sup>1)</sup>이 한국 사회에 일상적이면서 대중적인 담론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시기는 1970년대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대중 매체를 통한 대중 문화의 보급은 성의 보편화와 담론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소설, 특히 대중소설은 성 담론을 대중적으로 확산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전통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차별 받아 왔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차별을 규범화해 왔고 그것을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sex)의 생물학적인 차이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훈육받아 왔다.<sup>2)</sup> 한편 전통적으로 육체는 정신과의 통일체로 인식하여 윤리적 주체로서의 육체를 강조해 왔기 때문에, 육체의 감각적 쾌락은 열등한 것이며 억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여겨 왔다.<sup>3)</sup> 특히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지배적인 사회에서는 남성은 정신과 보다 가까운 존재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육체와 보다 가까운 존재로 인식되어 왔다.

이렇듯 성sexuality에 관한 담론은 육체와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면서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서 구성해 왔으며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끊임없이 생산

1) 본고에서 성sexuality이란 용어는 성적인 것을 모두 지칭한다. 다시 말해 성은 생물학적인 차원에서의 성sex과 사회 문화적인 의미에서의 성차gender, 그리고 성 행위sex acts를 포함한 성적 행동sex behavior을 의미하는 포괄적인 용어이다.

2) 이숙인, 「유가의 몸 담론과 여성」, 한국여성철학회 편, 『여성의 몸에 관한 철학적 성찰』 (철학과 현실사, 2000)

3) 오생근, 「데카르트, 들뢰즈, 푸코의 ‘육체’」, 『사회비평』 제 17호, 1997.

되고 있다.

성의 근대적 억압에 관한 그 담론은 진정 효력을 잃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틀림없이 그것을 지지하는 것이 쉽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은 엄연한 역사적 정치적 담보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수백 년에 걸친 대담하고 자유로운 표현의 시기에 뒤이어 17세기에 억압의 시대가 출현했다고 판단함으로써, 사람들은 그것을 자본주의의 발전과 일치시키기에 이른다. 그것이 부르조아적 질서와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인은 자기 자신의 성과 육체에 도취하여 자신을 인식하기도 하지만, 이와 동시에 “하나의 정치적 장치로 이용하는 체계의 이데올로기”를 무의식 중에 수용하기도 한다.<sup>4)</sup>

산업 사회에서 성과 육체에 대한 담론은 학교나 가정에서만뿐만 아니라, 소설, 광고, 영화 등의 다양한 기제를 통해 재생산된다. 소설 텍스트는 남성성, 여성성에 대한 사회적 통념, 그리고 어떤 이데올로기를 생산 또는 재생산하고 있는 현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설 텍스트는 단지 그러한 권력을 재생산하고 유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주변화되어 있거나 너무나 국지적이어서 인식되지 않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그것에 도전하는 담론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질문하고 감시하고 숨어서 노리고 엿보고 뒤지고 만져보고 밝혀내는 권력을 행사하는 쾌락이 있고, 다른 쪽에는 그 권력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고 그것을 피하고 속이고 우습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자극되는 쾌락이 있다. 스스로

4) 미셸 푸코(이규현 역), 『성의 역사: 제 1권 앎의 의지』(나남 출판, 1995), p.26.

5) 보드리야르는 “성을 「이용」하는 광고업자들의 배후에는, 인간의 전면적 해방으로 향하는 위험한 변증법에 대항해서 성해방을 (도덕적으로는 비난하기도 하지만) 「이용」하는 기존의 사회질서가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장 보드리야르(이상률 역), 『소비의 사회』(문예출판사, 1992), p.219)

를 추적의 대상인 쾌락에 의해 침입 당하도록 내버려두는 권력이 있고, 그것의 맞은 편에는 모습을 나타내어 빈축을 사거나 저항하는 쾌락 속에서 스스로를 확인하는 권력이 있다.<sup>6)</sup>

성과 육체가 지배 권력이 행사되는 전략적 거점이라고 볼 때, 성과 관련된 된 담론 분석은 성과 육체를 통해 지배 권력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균열이 생기어지는지를 고찰해야 한다. 또한 텍스트가 성과 육체라는 문화적 코드를 통해 대중의 실존을 표현 내지 생성하고 있으며 대중의 실존은 텍스트를 통해 그 문화적 코드를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sup>7)</sup> 성과 관련된 담론 분석은 독자 대중의 성과 관련된 의식을 규명하는 시도여야 한다.

한국사회에서 1970년대 성과 육체의 담론은 산업화와 더불어 진행되면서, 성과 육체의 상품화와 그것에 대한 비판의 논의가 동시에 진행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논의는 성과 육체를 사적 관심사로 부각시키는 대중적 분위기를 조성하게 된다.

성 상품화를 주도한 매춘의 확대는 급격한 산업화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산업화의 첫 단계에서 여성은 가정에서 시장으로, 지방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남성보다 불리한 임금 노동자가 된다. 임금을 받는 대부분의 여성들은 저임금의 하층 직업에 배치되며 그 결과 가난과 궁핍 상황에 처하게 된다. 절대적인 빈곤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으나, 궁핍한 삶에서는 벗어날 수 없기에 자발적으로 창녀가 되기도 했다. 다시 말해서 경제 발전이 전체 사회의 물질주의적 수준 향상을 가속화할수록, 특별한 기능을 습득하거나 물질적 혜택을 받지 못한 여성들은 물질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쉬운 수단으로 매춘을 선택하게 된다. 특히 매매춘이 산업화되고 전지구적으로 확산되는 시기는 경제 발전이 고도화되는 1970

6) 미셸 푸코, 앞의 책, p.63.

7) 리처드 M. 자너(최경호 역), 『신체의 현상학』(인간사랑, 1994), p.295.

년대이다.”

매춘과 관련된 소설이 대거 등장하면서 1970년대 대중소설은 흔히 창녀 소설 내지 호스티스 소설이라고 명명된다. 고전소설에서 기생이나 1930년대 김유정과 박태원 소설에서 들병이나 여급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성과 육체가 교환가치로 상품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소설이 등장한 것은 오래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1970년대 대중소설을 호스티스 소설이라고 하고 “불순한 취향”을 조장하는 소설이라고 매도당하는 이유는 도시 창녀를 주인공으로 삼아 성과 여성의 육체를 노골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성 상품화를 가장 생생하고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호스티스 소설에 대한 부정적 반응은 육체적 ‘쾌락’이나 관능의 감각을 거부하는 정통적인 미학적 관점 때문이다. 이러한 미학적 관점은 육체적 쾌락과 자연 취향, 신체, 감각 등을 거부하고 그것과의 차별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미학적 관점을 초월하여, 1970년대 대중소설에 나타난 육체적 쾌락 내지 관능의 감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의미 작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고는 1970년대 대중소설 텍스트에서 여성의 육체는 이상화된 육체의 이미지와 훼손된 육체의 이미지라는 기호로 대립되다는 사실에 주목하고자 한다.<sup>8)</sup> 대립적인 육체의 이미지가 1970년대 대중소

8) 캐슬린 배리는 매매춘의 산업화는 근대 대춘을 위한 대규모 여성 배치, 외화 소득을 위한 관광 산업의 발전, 수출 지향적 경제 발전에 뒤이어 일어난다고 보았다. (캐슬린 배리, 정금나 김은정 역, 『섹슈얼리티의 매춘화』(삼인, 2002), p.161)

9) 부르디외는 정통적인 미학은 ‘순수 취향’을 강조하는 대신에, ‘불순한 취향’에 대한 거부를 기본 원리를 한다고 주장한다. ‘불순한 취향’이란 칸트가 혀, 입천장, 목구멍의 취향이라고 부른 것처럼 직접적인 감각의 쾌락으로 지각되는 단순한 형태를 말한다. 반면에 순수 취향은 향락을 강요하는 폭력에 굴복하지 않고 재현 대상으로부터 ‘거리’(칸트는 이 거리를 사물의 현존에 대해 감각적인 욕구능력을 떠나 있는 무관심한 관조라고 설명한다.)를 두게 되는데, 이 거리로부터 ‘자유’가 나타난다고 한다. 부르디외가 보기에, 이 양자의 대립은 ‘반성의 취향’과 ‘감각의 취향’의 대립이며, 야만스런 환상의 주체인 대중과 교양화된 부르주아 사이의 대립이라고 할 수 있다. (부르디외, 앞의 책, 하권, pp.792-820)

설에 지배적이었던 것은 도시 창녀를 주인공으로 삼은 소설이 대거 등장한 것과 관련성이 깊다. 또한 이러한 여성 육체의 이중적 이미지는 이 시기 대중소설의 대중성 내지 통속성을 드러내는 중요 요소이기도 하다. 이를 토대로, 본고는 1970년대 대중소설의 대중 서사의 원리를 규명하는 동시에, 성과 육체를 통해 드러나는 사회 역사적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 2. 이상화된 육체

미적 쾌감을 자극하며 관능적 상상력을 확장시켜주는 여성의 육체는 '보는 자'와 '보여지는 자' 모두에게 이상적인 육체로 매혹의 대상이 된다. 1970년대 대중소설에서 여성의 육체를 '보는 자'는 남성이고, '보여지는 자'는 여성인 것이다. 심지어 여성의 시선에도 여성은 남성의 성적 욕망의 대상, 감상의 대상이라는 남성의 시선이 내면화되어 있다. 남성은 시선을 조직하고 지배하는 권력의 담지자이다. 따라서 여성 스스로 자신의 육체를 통해 쾌락을 느끼거나 도취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를 대상화하는 것으로서 남성의 성적 욕망의 자극제로서 표출하는 매력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심지어 여성은 남성에게 보이기 위해 육체를 과시하여 남성의 욕망에 따라 움직이고 의미를 생산한다.

다시 말해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확고한 사회에서 여성의 육체가 대상화된다는 의미는 곧 여성 자신의 고유한 육체를 공적 영역에서 타자인 여성에 의해 감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영역의 주체인 남성의 입장에서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970년대 대중소설의 배경이 되는 산업사회에서 여성의 육체는 자본주의 생산과 소비체계에 흡수되면서

10)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는 "육체에 대한 「중요에 찬 사랑」은 모든 근대문화의 바탕 색을 이" 룬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육체는 매력의 대상이 되면서도 혐오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M. Horkheimer und TH. W. Adorno, 김유동 역, 『계몽의 변증법』 (문예출판사, 1995), pp.316-317)

상품의 형식을 띠게 되고,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결합되면서 남성의 시선을 생산 재생산하는 대상이 된다. 로라 멀비는 산업사회에서 두 가지 모순되는 형태가 시각적 쾌락을 만든다고 했다. 남성의 절시증<sup>11)</sup>과 여성의 나르시시즘<sup>12)</sup>이 그것인데, 남성의 시선은 '보는 자'의 즐거움, 즉 절시증 scopophilia에 해당하며 자신의 육망의 대상으로 여성을 대상화한다. 반면에 여성은 자신의 육체를 보는/보여지는 즐거움, 일종의 나르시시즘 narcissism에 빠져 도리어 자신을 남성의 대상으로 통제한다. 따라서 여성은 자신의 육체에 가해지는 보는/보여지는 자'의 시선이나 통제하는/통제받는 시선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축적하고 자신을 인식한다. 육체를 통해 세계와 접촉하게 되므로 여성은 육체를 매개로 하여 타인과 세계와 관계를 맺게 된다.

예를 들어 『별들의 고향』의 경아는 아버지의 죽음, 대학 포기 등 인생의 시련을 겪으면서 자신의 육체에 대해 나르시시즘에 빠진다. 경아처럼 내세울 집안이나 학력이 저급한 하층 여성에게 육체의 아름다움은 경제적 능력을 획득할 마지막 자산이므로 그녀와 같은 여성이 나르시시즘에 빠지는 이유는 삶의 원동력과 현실의 고통을 이겨내는 힘을 얻고자 하는 욕망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아는 나르시시즘을 통해 자신의 육체가 남성의 성적 대상으로서 교환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사회적 지위와 물질적 풍요를 보장해주는 유일한 도구라는 점을 발견한다. 이러한 발견 이후 경아의 육체는 더 이상 생산에 투여되는 노동력으로서 가치를 지닌 것이 아니라, 삶의 목표 그 자체가 되고, 남성의 성적 대상물로서 타자성을 능동적으로 수용한다. 또한 그녀는 나르시시즘을 통해 현실로부터 도피한다. 그러므로 그녀는 가난한 현실의 고통과 남성에게 버림 받은 고통을 쉽게 벗어난다.

- 
- 11)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서 절시증은 관음증 내지 관찰 망상증으로도 불리는 것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타인을 훑쳐봄으로써 성적 쾌감을 느끼는 이상 심리를 말한다. (지그문트 프로이트(임흥빈 외역), 『정신분석 강의(하)』(열린책들, 2002), p.605)
- 12) 프로이트에 의하면 나르시시즘은 성 도착증의 일종으로 분리하면서, 성장한 개인이 자신의 몸에 대해서 가능한 한 모든 섬세한 방법을 동원해서 배려하는 이상 심리이다. (위의 책, p.588)

자신이 보아도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인이 그곳에서 있었다. 고운 빛깔의 손수건이 맑은 물속에서 더욱 투명해지듯, 지는 햇빛 속에서 풀잎들이 오히려 더욱 빛나오고 타오르듯 경아의 온 몸은 한결 돋보여 수면을 향해 튀어오르는 비늘돋친 물고기처럼 팽팽한 생동감으로 넘쳐오고 있었다. 그녀는 참으로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자신의 아름다움에 대해 마치 다른 사람을 보듯 감탄하고 있었다.<sup>13)</sup>

위 인용문은 경아가 강영석으로부터 버림 받은 고통을 벗어나 홀아비인 이만준과 맞선을 보기 위해 집을 나서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거울을 통해 바라보는 장면이다. 경아가 거울을 통해 자신의 육체를 바라보고선 “자신이 보아도” 아름답다고 느낀다. 그녀가 이미 익숙하게 보아왔던 자신의 육체를 한번도 본 적이 없는 것처럼 새롭게 바라보는 이유는 다른 자아로 변화되고 싶다는 내면적 욕망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보듯” 거울 속의 자신을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보고 감탄한다. 경아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객관화하기 위해 경아 자신의 시선과 다른 사람의 시선을 무의식적으로 교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남성을 의식한 여성의 육체에 대한 경아의 시선은 결코 주체적인 시선이라 할 수 없다. 실제로 경아의 육체를 서술하고 보는 사람은 은폐된 남성이다. 그녀가 자신의 육체적 아름다움에 대해 예찬하지만, 실은 그 예찬은 남성의 성적 대상 즉 교환가치에 대한 예찬인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거울은 경아 자신이 남성의 대상화가 되는 것을 묵인하게 하는 매개체이며, 도리어 그런 대상화가 된 육체를 과시하도록 하는 도구이다. 그러므로 경아가 자신의 육체에 대해서 쾌감을 느끼는 것은 스스로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자신의 육체를 타인에게 ‘보여지는 자’로서의 쾌감인 것이다.

새로운 사람에게 사랑을 느껴서 과거를 잊는다는 것은 경아가 새로운 ‘처녀의 방’으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3) 최인호, 『별들의 고향』(1972-73년 조선일보 연재) 상권(샘터사, 1994), p.195



왜냐하면 여자의 처녀성은 얼마든지 재생되는 것이니까. 여자는 자기가 사랑한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부터 처녀로서 부활하니까.<sup>14)</sup>

이상적인 육체를 소유했다고 스스로 판단한 경아는 다시 자신이 “처녀로서 부활”할 수 있다고 자기 최면을 건다. 그것은 순결성을 회복하여 개인적 행복과 경제적 지위를 확보하고 싶다는 욕망의 우회적 표현이다. 그러므로 그녀는 내면적 가치보다 아름다운 외양에서 여성적 매력을 찾는 듯한 중년의 홀아비 이만준과 결혼한다. 경아는 자신의 육체적 아름다움이 순결 상실을 상쇄할 만큼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육체의 아름다움과 젊음 외에 순결성마저 소유하고자 한 이만준의 속내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이다. 실은 ‘보는 자’에 의해서 ‘보여지는 자’는 판단되기 때문에 ‘보여지는 자’ 경아의 주관적 판단은 무의미한 것이다. ‘보는 자’ 이만준은 ‘보여지는 자’ 경아의 주인이기 때문에 ‘보는 자’가 독단적이고 변덕스러울지라도 그의 판단에 따라 ‘보여지는 자’의 인생은 뒤집혀질 수 있었던 것이다. 아름다움은 ‘보는 자’의 권력이라는 입장에서 재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이고 시각적인 것이 아니라 대상에 대한 ‘보는 자’의 인식, 관념이 개입되는 것이다.

경아는 이혼 당한 후 술집을 전전하다가 화가인 김문오를 만난다. 순결성과 모성성을 상실했다는 이유로 이혼 당한 경아는, 미적 감식안이 있는 그에게 여전히 아름다운 육체의 소유자로 인식된다.

여자의 몸은 남자에 의해서 길들여지는 것으로 믿고 있는 나는 몸을 파는 여자에게서 언뜻 느끼곤 하는 그런 매혹하고 때묻은 냄새는 아니지만 무언가 조금 무너져 있는 흔적. 표피를 벗긴 과일이 공기에 의해 착색되는 듯한 흔적, 그러나 차라리 그런 흔적으로 더욱 풍요로운 점액질과 같은 육체를 경아에게서 보고 있었다.

14) 위의 책, p.222.

집요한 남자들의 손으로 각(角)이 드디어는 부드럽게 마멸된 것처럼 그녀의 어깨는 찰찰뚝 흘러 내리고 있다. 피부는 잘 빳어진 자기의 표면처럼 아른거린다.<sup>15)</sup>

‘보는 자’ 문오의 눈에 ‘보여지는 자’ 경아는 “부드럽게 마멸된” 듯한 육체를 지닌 즉 성적 쾌락을 유발하는 관능미를 지녔다. 게다가 다른 창녀처럼 “메스하고 때묻은 냄새”를 풍기지 않지만 지속적인 책임을 지지 않을 만큼의 “조금 무너져 있는 흔적”이 있으므로, 문오는 경아와 선뜻 동거를 시작한다.

산업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용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환가치를 추구함으로써 가짜 가치의 지배를 받는다. 육체도 교환가치임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육체를 물질과 교환하려고 하는 허영심에 가득찬 여성이 박완서의 소설 『휘청거리는 오후』에 등장한다.

초회는 아름답고 편안한 주택과 고가한 보석과, 더 고가한 보석을 살 수 있는 돈을 주는 공회장의 애무에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다.

그녀는 남자들 사이에 특히 공회장같이 여자에 대해서도 도통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는 정력적인 남자들 사이에 떠도는 여자에 대한, 아니 여체(女體)에 대한 소문에 대해 알 만큼 알고 있었으므로 그 소문대로만 반응하면 되었다. 그 소문은 모든 소문이 그렇듯이 아주 근거없는 것도 아니면서도 진실과는 동떨어지는 것이었지만 그대로 충실히 반응해 줌으로써 공회장으로 하여금 자기의 정력과 정력제의 효험에 대한 한층 두터운 자신을 갖게 해줄 수 있다는 걸 초회는 알고 있었다.<sup>16)</sup>

초회는 허영심 때문에 사랑 대신에 물질적 안정을 욕망하고, 그것을 획득한다. 물질적 안정이 자신의 육체와 교환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15) 위의 책, p.106.

16) 박완서, 『휘청거리는 오후』(1977년 창작과 비평사 간, 본고의 텍스트는 1998년 세계사간), p.450.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녀는 자신의 육체에 대해서 '보여지는 자'의 시선으로 관찰하는 동시에 의식적으로 '보는 자'의 시선으로도 관찰한다. '보여지는 자' 여성은 남성의 시선을 의식하여 자기를 남성의 대상으로 삼고, 자기 연출에 노력한다. 따라서 초희는 "아름답고 편안한 주택과 고가한 보석과, 더 고가한 보석을 살 수 있는 돈을 주는 공회장"에게 "정력적인 남자들 사이에 떠도는 여자"처럼 반응한다.

그녀 역시 『별들의 고향』의 경아처럼 자신의 육체를 보고 자기 도취적 쾌락에 빠지지만 그것은 시장성 높은 자아 만들기이며 신데렐라적 환상을 성취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그러나 초희는 경아와 달리 자신의 시선 안에 남성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으며, 남성의 시선을 즐기고 남성을 유혹하는 공모 관계에 있다. 이것은 초희 스스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종속되어 주체적인 시선이나 육체적 경험 내지 욕구를 통제하고, 자신을 남성의 성적 욕망의 대상 또는 감상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이는 남성에게 종속되고 대상화되는 것을 초희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다. 초희처럼 『죽음보다 깊은 잠』의 다희도 남성의 대상화에 자발적으로 동의 동조하는 인물이다.<sup>17)</sup>

전통적인 가치관에 따르자면, 성적 욕구나 성적 억압의 주체는 언제나 남성이었다. 여성은 성적 욕구에 있어서 타자로서 존재해왔다. 남성은 여성의 육체를 관람하는 주체이고, 여성은 자신의 육체를 관람하게 하는 대상에 불과했던 것이다. 산업사회가 되면서 더 문제적인 것은 초희나 다희처럼 여성 스스로 자신을 상품화하는데 자발적으로 나서게 된다는 점이다. 즉 관능적인 매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 자신의 육체를 신비화하고, 자신의 육체를 통해 타인과 차별성을 내세우고 경쟁한다. 여성의 육체가 주는 여성에 대한 환상과 성적 상상력은 남성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한편, 여성들에게 그런 남성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하고 더 가꾸도록 유도한다.

이처럼 1970년대 대중소설 텍스트에서 남성의 육체와 여성의 육체는 모

17) 박범신, 『죽음보다 깊은 잠』, 문학예술사, 1979.

두 시선을 받는 대상이지만 유독 여성의 육체가 매혹의 대상으로 한정된다. 이는 1970년대 대중소설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토대가 남성적이기 때문이다. 즉 시선이 전적으로 남성적인 특권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의 육체가 유발하는 이쁨다움이 쾌감을 야기하는 한편, 여성의 육체 묘사가 상세하게 서술됨으로써 관능적 상상력을 유발시키고 있다. 이러한 여성의 육체는 남성들의 사회적이고 환상적인 구성물에 불과한 것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이때 타자인 여성의 나르시시즘은 대부분 자신의 타자성을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행위이며, 현실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회피하는 행위가 되고 만다. 나르시시즘에 몰입하는 여성의 경우, 자신의 육체를 '보는 자'와 타인에게 '보여지는 자'가 되지만, 스스로 남성의 대상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된다. 이는 여성의 정서와 심리 속에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내면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여성이 남성의 성적 대상으로 물화될 때, 여성은 자신의 육체가 지닌 구체적인 가치를 도외시하고 표면적인 가치 즉 기능적인 교환가치에 매달리게 된다는 사실이다.<sup>18)</sup> 그래서 여성은 자신의 육체를 보는 시선을 의식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육체를 관리한다. '보는 자'인 남성의 시선이 '보여지는 자'인 여성의 육체에서 사라졌을 때, 여성은 도리어 자기 소외에 빠지는 상황이 전개되기도 한다.

### 3. 훼손된 육체

이상화된 육체는 훼손된 육체에 대한 혐오감과 대비되면서, 그것의 고결함과 미적 쾌감이 더 돋보이게 된다. 남성이 여성의 관능적 육체를 찬미하고 그것을 소유하게 되면 관능성은 훼손되지 않지만 순결성은 훼손된다. 그런데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자본주의 체제가 결합된 사회에서는 남성

18) 장 보드리야르, 앞의 책, p.196.

에 의해 순결성을 훼손한 여성은 또한 남성에 의해 통제되는 모순적 상황에 처하게 된다. 다만 여성이 순결성을 훼손했다라도 관능적 육체를 지속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관리하거나 재생산의 기능을 수행하는 모성성을 지니게 되면, 사회적 지탄을 모면하게 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창녀와 같은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 그러므로 1970년대 대중소설에서 훼손된 육체는 혐오감을 주는 육체, 불모성, 통제하는 시선과 통제 받는 시선 등의 기표로 지시된다.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지배적인 사회에서 성적 욕구나 성적 억압의 주체는 남성이다. 남성은 여성의 육체를 욕망의 대상으로 택하고 그들을 보고 즐거워하는 동시에 통제하는 데서 쾌락을 구한다. 라이히에 따르면 성의 억압은 모든 문화적 형태 속에서 나타나는 특정한 부권주의적 문화라는 대중심리학적인 토대를 형성시킨다.<sup>19)</sup> 1970년대 대중소설 역시 그 자장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여성의 육체는 남성에 의해서 관람되고 통제되는 이중의 시선에 의해 포착된다. 여성이 스스로를 본다고 착각하지만, 본질적으로 남성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남성의 여성에 대한 독점적 소유욕과 통제를 최인호의 『별들의 고향』에서 살펴 볼 수 있다.

“난 그 남자 때문에 망쳤어요. 난 그 남자에게 모든 것을 줬어요. 우스운 얘기지만 한때 있던 재산도, 내 몸까지도 모두 바쳤어요. 그런데 보세요.”

경아가 불쑥 팔뚝에 그려져 있는 문신을 내 눈앞으로 내밀었다.

“언젠가 아저씨가 나를 처음 봤을 때 그 문신이 무엇인가고 물었죠.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 남자가 내게 강제로 그려준 표시예요. 내가 맨 처음 그 남자에게서 도망쳤다가 붙잡혀서 강제로 자기의 표시를 남겨줘야 한다면서 그런 문신이에요.”<sup>20)</sup>

19) 빌헬름 라이히, 윤수중 역, 『성혁명』(갯길출판사, 2000)

20) 최인호, 앞의 책, p.167.

경아의 세 번째 남자인 이동혁은 경아에게 돈과 몸을 바치기를 요구한다. 자신을 피해 경아가 “도망쳤다가 붙잡” 히자 “강제로 자기의 표시를 남겨둬야 한다면서” 문신까지 새긴다. 순결성을 상실하고 술집을 전전하는 여성은 ‘아무래도 좋은 여성’ 이기에 이동혁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경아를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통제’ 하려고 하는 것이다. 여성의 관능적 육체가 남성에게 관능적 환상과 관능적 상상력을 주었다면, 훼손된 육체는 권위적인 남성의 시선에 의해서 통제 받기 때문이다. 통제하는 자는 통제 받는 자를 사회적 통념에 의해서 비판하고 자신의 통제를 정당화한다. ‘육체적 순결성+모성성’ 을 여성성으로 규정하는 사회적 통념에 의해서, 여성은 결혼 전에는 ‘순결=처녀성’ 을 결혼 후에는 ‘모성성’ 을 지키지 못하면, 남성의 보호에서 ‘배제’ 되어 사회의 주변부로 밀려나는 것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만준은 대답도 없이 무표정하게 경아를 쳐다보고 있었다. 경아는 그의 눈을 마주보았는데 그의 눈은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고 자기의 내부를 구석구석 뚫어져라 응시하고 있는 것 같아서, 경아는 기름 독에 빠진 날 곤충처럼 그의 시선을 피할 수 없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sup>21)</sup>

위 인용문은 경아의 두 번째 남자인 이만준이 경아가 임신 중절 수술을 한 적이 있다는 말을 의사에게 듣고서, 경아를 “뚫어져라 응시” 하는 부분이다. 이 응시는 ‘육체적 순결성+모성성’ 지키지 못한 자에 대한 통제하는 자의 질책인 것이다. 따라서 통제 받는 자는 배려의 대상에서 이제 하찮은 “곤충” 처럼 대우해도 무관한 존재로 순식간에 전락한다.

“지쳤어. 이젠 정말 지쳤어. 당신의 눈물을 하루에도 수십 번 보는, 보는 일에 지쳤소.”

만준의 말이 경아를 향해 차디차게 던져졌다.

21) 위의 책, p.362.

“저두 술 한잔 주세요.”

경아가 불쑥 눈물이 번진 얼굴을 들어 남편을 쳐다보았다. 이제는 내가 이렇게 울고 앉아 있어도 이미 남편은 알아차린 것이니까.<sup>22)</sup>

인용문에서 “눈물이 번진 얼굴”을 보는 것은 경아가 아니라, 경아 앞에 있는 이만준인 것이다. 이만준은 “눈물을” 흘리는 애처로운 얼굴의 아내가 아니라 “눈물이 번진” 지저분한 얼굴의 창녀에게 던지는 시선으로 경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평소에 이만준은 경아가 눈물로 호소하면 무조건 경아의 부탁을 들어주었던 자상한 남편이었다. 그런데 그는 경아가 혼전에 이미 순결성과 모성성을 상실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는 눈물어린 경아의 호소를 외면하는 한편, 경멸한다.

결혼 전에 육체적 순결을 잃은 딸에게 아버지의 시선 역시 통제하는 자의 시선이 된다는 사실을 『휘청거리는 오후』에서 읽을 수 있다.

허 성 씨는 지금 우희에게 얼마나 따뜻한 마음과 도움이 필요한가를 안다. 그러나 조금도 따뜻한 마음이 우러나지 않는다. 자기 가슴에서 파동치는 커다란 몸뚱이가 싫고 징그럽다. 따뜻하게 어루만지고 위로해 주기는커녕 떠다 밀고 싶은 걸 참는 것만도 겨우겨우다.

이미 반 이상 눈치채고 있었던 딸의 육체적인 변화가 막상 명백해지고 나서 허 성 씨에게 최초로 온 것은 심리적 충격 이전에 거의 육체적인 혐오감이었다.<sup>23)</sup>

아버지 허성씨는 “딸의 육체적 변화”를 감지하고 즉각적으로 “육체적 혐오감”을 느낀다. 허성씨는 딸의 “커다란 몸뚱이가 싫고 징그럽다”고 느끼는데 이것은 육체적 순결을 잃은 자에 대한 통제하는 자의 시선이며 “떠다 밀고 싶은” 배제의 심리이다. 이런 심리는 시각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인 것

22) 위의 책, p.366.

23) 박완서, 앞의 책, p.151.

같지만 내면화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의한 통제인 것이다. 그는 잠깐 동안 감정에 휩싸여 일반 남성의 시선으로 딸을 바라보다가 잠시 후 이성을 되찾고 다시 부성의 자리로 되돌아와 딸 우희의 문제를 사회적 관습에 따라 처리하려 한다. 육체적 순결을 훼손한 딸의 결혼을 서두르는 것이다. 이는 딸의 사회적 지탄을 모면하게 하려는 아버지의 배려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딸의 행동을 비판하고 그의 관리 대상에서 사위의 관리 대상으로 딸을 넘기려는 시도인 것이다. 결혼 전에 순결을 상실한 우희는 결혼 후에도 가족으로부터 배려 대상이 되지 못하고 대가족의 시집살이와 권위적으로 돌변한 남편의 폭행을 감내하면서, 살아가는 처지가 된다. 우희는 대학까지 졸업한 합리적 사고를 훈련받은 여성이지만, 결혼 후 대가족제도의 비합리적인 요구에 쉽게 순응해 들어간다. 그 이유는 그녀도 모르는 사이에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내면화되어 있기 때문이며 '취직의 문은 바늘구멍보다 더 답답' 할 정도로 여성의 사회 활동이 제약되어 있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혼전의 '순결' 이 통제되듯이, 결혼 후의 '혼외정사' 도 통제된다.

1) 김상기가 그랬던 것처럼 거울 앞에 서보고는 못 본 것을 본 것처럼 열린 거울을 외면했다.

그속에서 만난, 낯선 방에 서 있는 자기 모습에 무서움증을 느꼈기 때문이다. 미구에 자기 얼굴이 석고처럼 창백하게 경화될 조짐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큰 거울을 피해 콤팩트를 보며 입술, 볼, 연지 등을 칠하나 잘 되지 않는다. 손끝도 손끝이지만 시각조차 믿을 수 없어진다.<sup>24)</sup>

2) 웨이터가 별난 여자 다 보겠다는 듯이, 그러나 귀찮다는 듯이 무뚝뚝하게 초회를 밀어내면서 계단 쪽을 손가락질한다.<sup>25)</sup>

24) 위의 책, p.474.

25) 위의 책, p.476.



인용문 1)은 『회청거리는 오후』의 초회가 남편 모르게 혼외 정사 직후, 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외면하는 장면이다. 큰 거울에 비추어진 자신의 육체를 보고 “못 본 것을 본 것처럼” 외면하는데 자신도 모르게 통제 받는 시선을 느낀 것이다. 통제 받는 시선을 의식하고 그녀는 콤플렉스의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에 화장을 한다. 화장품을 “칠하나 잘 되지 않는다” 것은 창백한 얼굴의 은폐가 아니라 그녀의 부도덕한 내면의 은폐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2)는 혼외 정사 직후 호텔방을 나서자 자신에 대해서 “웨이터가 별난 여자 다 보겠다는 듯이” 반응한다고 그녀는 의식한다. 이것은 실은 웨이터의 반응이 아니라 통제 받는 시선을 의식한 초회의 반응인 것이다. 타인의 시선에 “무서움증”<sup>26)</sup> 마저 느끼는 것 역시 타인이 주는 시선 때문이 아니라 통제 받는 시선을 의식한 초회의 반응이다. 무서움증이란 내면화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그녀 스스로 혼외 정사를 도덕적으로 단죄한 결과이다.

미소를 띠고 자기를 올려다보고 있는 여섯 개의 눈동자 앞에서 민희는 온몸이 굳어지며 얼굴이 새빨개졌다.

그들의 미소가 공범자끼리의 친밀감에서 나온 미소라고 민희는 생각할 수 없었다. 이 바보야! 하는 비웃음처럼 보였다.

아까 양일이라는 청년과 알몸으로 뒤굴 때는 그 자체로 사회적 모든 인연을 초월한 순수한 세계에서 해매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옷들을 갖춰 입은 그들과 마주치고 보니 민희는 자기가 그들에게 무력한 노리개로서 실컷 휘둘림을 당한 느낌이 왈카 들었다.<sup>27)</sup>

김승옥의 『강변부인』의 주인공 민희 역시 혼외 정사 직후, 자신이 “무력한 노리개”로 타인에게 비쳐진다는 생각에 부끄러워한다. 부끄러움은 민희

26) 위의 책, p.476.

27) 김승옥, 『김승옥 소설 전집 4-보통여자/강변부인』(1973년 『독서신문』 게재, 본고의 텍스트는 2002년 문학동네 간), p.263.

스스로 통제 받는 시선을 의식하고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자신의 행동을 단죄한 결과이다.

이처럼 훼손된 육체를 기호화하는 혐오감을 주는 육체라는 기표는 관능성과 순결성의 상실에 의해서 규정되며, 불모성은 모성성의 상실로 규정된다. 결국 훼손된 육체에 대한 통제의 시선에는 여성성을 관능성, 순결성, 불모성으로 규정하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 4. 대중 서사와 타협적 균형의 원리

이처럼 1970년대 대중소설 텍스트에서 이상화된 육체는 보는/보여지는 자'의 시선에 의해 여성의 육체는 쾌감과 관능적 상상력을 주지만 자본주의 체제에 의해서 상품의 형식을 띠게 되면서 조종, 통제, 착취당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이상화된 육체를 '보는 자'가 남성이고 '보여지는 자'가 여성이 당연시 될 때, 심지어 여성 스스로 이상화된 육체를 만들기 위해 자기 억압과 개성의 자기 연출, 자기 대상화와 자기 도취적 쾌락, 시장성 높은 자아 만들기와 신데렐라적 환상에 몰입하게 한다. 반면에 훼손된 육체의 소유자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성 규범에 어긋나므로 사회로부터 통제 당한다. 이러한 통제의 논리에 의해 모성성과 순결성 그리고 관능미로 여성성이 규정되고, 그러한 여성성을 구비한 여성만이 남성 내지 사회의 보호 대상이 되고, 그렇지 않은 여성을 사회로부터 배제된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1970년대 대중소설 텍스트에서 육체 중에서 가장 흥미를 끄는 부분은 성적인 측면에서의 여성의 육체인 바, 성과 관련된 육체는 성차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성차를 야기시키고 있다. 즉 1970년대 대중소설 텍스트는 남성성을 정신과 공적영역으로, 여성성을 육체와 사적 영역으로 분리시키고 있다. 이러한 분리는 대중에게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사회적으로 열등하다는 의식을 내면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남성/여성 간의 차이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극대화하여 남성과 여성을 각기 육체의 소비자와 공급자로 이분화

하고, 육체의 소비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여성에게 도덕적 차원의 비판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sup>28)</sup> 또한 여성성을 순결성과 모성성/관능성으로 분리함으로써 여성을 순수한 여성/순수하지 않은 여성, 즉 재생산 기능을 수행하는 대상과 성적 유희 대상으로 구분하고 후자를 사회적으로 차별하는 사회적 통념을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남성/여성, 정신/육체, 순수한 여성/순수하지 않은 여성 등의 구분은 전통적인 성규범과 육체에 대한 생각이 자본주의의 상품 논리와 교묘히 결합된 결과로서, 여성의 육체를 대상화하여 보고/보여지는 즐거움을 대중화하는데 일조한다.

그러나 텍스트의 공간에서 여성의 육체는 한편으로 남성의 시선에 의해서 포착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여성도 그러한 시선을 통해 자유로운 자신의 공간을 확보하려는 작업을 무의식적으로 동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모순적 시선과 모순적 작업을 통해 성 자체가 재생산되거나 새롭게 구성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1970년대 대중소설에서 여성은 역시 성적 억압의 대상이 되지만, 자신의 육체를 통해 억눌린 일상과 사회적 규범이나 가치로부터 해방될 가능성도 표현한다. 즉 여성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자신의 육체를 보여주지만, 다른 한편으로 자기 자신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감각을 사회적으로 확인 받고자 하는 욕구도 갖는다. 이런 여성을 '보는 자'인 남성들도 여성과 동일하게 일상이나 관습의 억압으로부터 해방하고자 하는 욕구를 갖게 된다. 이와 같이 성과 육체의 담론에 기대어 인간은 자신의 자유로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성과 육체의 담론은 단순히 보는/보여지는 감각적 즐거움을 주는 구경거리를 넘어서 인간의 육체에 대한 새로운 담론을 형성하게 하는 힘을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관능적 상황은 개인적 편차는 있겠지만, 누구에게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요소인데, 1970년대 대중소설 텍스트의 성과 육체에 대한 담론은 그러한 상황을 연출함으로써 인간의 본능적 욕망을 해방시킬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

28) 리타 펠스키, 김영찬 심진경 역, 『근대성과 페미니즘』(거름, 1998), p.108.

런 의미에서 1970년대 대중소설은 가부장적인 여성관이나 성적 에너지를 공적 담론으로 방출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전통적인 윤리관으로부터 해방될 가능성을 잠재한 공간이다. 성과 육체라는 문화적 코드에 사적 생활의 발견 내지 자유라는 기의(의미작용의 개념)가 은유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공간이다. 또한 텍스트가 성 내지 육체를 통해 여성을 남성의 대상화나 경멸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으로만 작용하지 않는다. 텍스트는 여성의 성과 육체를 공적 담론으로 끄집어내고, 그것에 가해지는 이데올로기를 드러냄으로써 도리어 그 이데올로기를 전복시킬 가능성도 내포하게 된다. 남성의 시선이 지닌 특권은 이데올로기이므로 불안정하며 상상력에 의해서 뒤집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sup>29)</sup>

분명 1970년대 대중소설은 성과 육체를 노골적으로 다룸으로써 감각적 쾌락을 부여하고 자유를 표방하지만, 성과 육체에 대한 사회적 관습이나 규범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처럼 1970년대 대중소설이 성과 육체에 대한 이중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대중 서사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중 서사 방식은 텍스트-독자-유통의 순환구조를 의식한 서사 방식인데, 특히 익숙한 감수성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기성의 감각제도 속에서 기분 좋게 흔들기만을 원하는 독자 대중을 의식한 서사 방식이다.<sup>30)</sup> 대부분의 독자 대중은 판능적 육체와 행동을 보고/보여지는 즐거움을 통해 사회적 관습으로부터 해방된 자유를 느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사회적 관습을 유지하려는 욕구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기도 한다. 이러한 독자 대중의 불편함을 라이히는 '쾌감 불안'이라고 지칭한다. 즉 쾌감불안이란 "성 흥분을 억압하는" 행위로서, "성 행위의 처벌에 대한 외부로부터 학습된 불안"을 의미한다.<sup>31)</sup>

1970년대 대중소설이 쾌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취한 대중 서사 방식으

29) 피터 브룩스, 이봉지 외역, 『육체와 예술』(문학과지성사, 2000), p.517.

30) 나카무라 미쓰오, 「풍속소설론」-근대 리얼리즘 비판, 이토 세이 외, 유은경 역, 『일본 사소설의 이해』(소화, 1997)

31) 빌헬름 라이히, 앞의 책, pp.180-181.

로 우선 '반복'적인 서술방식을 들 수 있다. 동일한 사실을 "반복iterative"<sup>32)</sup> 서술함으로써, 허구가 허구적 이미지가 아니라 "확실한 사실constat"<sup>33)</sup>로 인식되는 효과를 낳는다. 예를 들어 여성 육체와 성을 말초적인 감각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상세한 묘사의 '반복' 서술로 인하여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보는/보여지는 즐거움을 대중화시키는 데 기여한다. 특히 시각적 쾌락이나 입술이나 성기 등의 피부에 의한 육체 접촉과 그것으로 인한 촉각적 쾌락을 '반복'적으로 상세하게 서술함으로써, 사생활의 은밀함이나 여성을 사유화할 수 있다는 환상을 자극한다. 그런데 1970년대 대중소설은 여성의 육체와 성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상세하게 묘사하여 말초적 감각을 자극하는 한편, 쾌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순응하는 인물의 성격을 병치시켜 서술한다. 따라서 텍스트에 등장하는 여성은 천진난만하거나 정숙한 성격 내지 성처녀와 같은 내면의 소유자가 대부분이다. 이들 여성은 표면적으로 다른 성격의 소유자로 인식되지만 본질적으로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순응하는 여성성을 지닌 인물의 변형적 '반복'에 불과하다. 이러한 인물의 성격으로 인해 성행위나 육체에 대한 상세한 묘사의 반복이 주는 말초적 감각의 자극성은 더욱 거부감 없이 확장될 수 있었던 것이다. 환언하건대 반복과 병치의 서술방법을 통해 1970년대 대중소설 텍스트는 지배 이념의 지배성에 순응해 들어가는 한편 심층적 차원에서 그것을 거부하려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을 동시에 충족시키고 있는 것이다.<sup>34)</sup>

32) '반복'이란 하나의 서술방식으로서 동일한 사건이나 동일한 단어, 한 사건을 여러 번 서술하는 것을 의미한다.(G rard Genette(trans Jane E. Lewin), *Narrative Discourse Revisited* (Cornell Univ Press, Ithaca, New York, 1988), pp.38-40.)

33) '확실한 사실'은 신화적 형식 중에 하나이다. 롤랑 바르트는 '확실한 사실' 외에 '예방 접종vaccine', '역사의 제거privation d'Histoire', '동일화identification', '동어 반복tautologie', '양비론nininisme', '질 의 양화quantification de la qualit'를 신화의 수사학적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중 '확실한 사실'은 이미 만들어진 세계(신화적 세계)를 자명한 것으로 믿게 하여 "더이상 만들어야 할 세계를 지향하지 않"게 유도하는 수사학(신화 기표의 다양한 형태들이 와서 자리잡는 고정된, 규칙적인, 뚜렷한 양식의 총체)적 형식을 의미한다.(롤랑 바르트, *이화여대 기호학연구소 역, 『현대의 신화』*(동문선, 1997), pp.330-332)

다음으로 1970년대 대중소설은 쾌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중 서사 방식으로 타협적 균형의 원리를 취하고 있다. 대중소설은 상대적 자율성을 지닌 문화로서, 구체적인 일상적 국면에서 “타협적 균형compromise equilibrium”<sup>35)</sup>을 유지하려 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타협적 균형이란 매혹과 거부의 갈등을 조정하는 원리로서 “분명치도 않으며 직접적이지도 않은 작용과 반작용을 통해 낚은 사고 방식”<sup>36)</sup>이나 제도를 변형시킨다는 의미, 즉 지배 이념의 강력한 지배에 매혹되면서 동시에 그에 대해 폭넓게 도전한다는 적극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sup>37)</sup> 앞서 보았듯이 1970년대 대중소설 텍스트 역시 육체를 이상화된 육체와 훼손된 육체로 대립시킴으로써 육체에 대한 ‘매혹’과 ‘거부’를 병치시키고 있다. 그러한 병치 내지 대립은 사회적 규범이나 가치에 의해서 거부되는 여성인 창녀나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을 구제하는 방법과 배제하는 방법을 취함으로써, 타협적 균형을 모색한다. 즉 타협적 균형의 원리에 의해서 텍스트는 관능적이고 남성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 성격을 소유한 창녀는 모성성과 순결성을 지닌 성처녀로 승화시켜 관능적인 상상의 공간은 확장시키는 방법과 그러한 성격을 지니지 못한 창녀는 도덕적 차원에서 배제하는 방법을 취한다. 전자의 방법을 취하는 1970년대 대중소설로는 『별들의 고향』과 『겨울여자』<sup>38)</sup>를 들 수

34)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줄고, 『1970년대 대중소설 연구』(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3)를 참고하기 바람.

35) Antonio Gramsci, Selections from Prison Notebooks, Quintin Hoare & Geoffrey Nowell-Smith(eds)(London : Lawrence & Wishart, 1971), p.161.

36) 안토니오 그람시, 이상훈 역, 『그람시의 육중수고 Ⅱ』(거름, 1993), p.250.

37) ‘타협적 균형’과 비슷한 개념으로 마르탱은 ‘백일몽’이란 용어를, 카웰티는 ‘도피의 예술적 수완’이란 용어를, 레이몬드 윌리엄즈는 ‘마술적 해결’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윌리엄즈는 19세기 소설들에서 당대 사회에 존재했던 윤리와 실제 경험 사이의 공간을 메꾸기 위해 마술적 해결을 사용했다고 주장한다.(이브 올리비에 마르탱, 임성래 김종현 역, 『프랑스 대중소설사 서설』, 대중문학연구회 편, 『대중문학이란 무엇인가』(평민사, 1995), p.159. / J. C. Cawelti, *Adventure, Mystery and Romance: Formula Stories as Art and Popular Culture* (Chicago and London, Chicago univ Press, 1976), p. 1. / R. Williams, *The Long Revolution*. (Harmondsworth : Penguin, 1965))

있다. 이들 소설의 주인공인 경아와 이화는 소설적 문법에 의해서 성치너로의 승화된 인물이다. 특히 『별들의 고향』에서 창녀에서 성치너로의 승화라는 모티브와 아름다운 죽음이라는 환상적 모티브가 결합된 결말 구조는 성적 규범과 보는/보여지는 즐거움 사이의 간극을 조정하는 타협적 균형의 원리가 적용된 지점이라 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남성은 자신의 무책임을 묵인하고, 부끄러움과 죄의식을 털게 하는 면죄부를 부여받고 있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더 강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더 심층적 차원에서 분석해 볼 때, 이들 소설은 여성을 육체적 순결성 대신에 정신의 순결성을 아이에게 모성을 베푸는 여성 대신에 모성적 성격을 지닌 여성으로 환치시켜놓는다. 이러한 환치는 모성성과 순결성을 극단적으로 분리/통합시키는 이중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안으로 이들 여성들을 수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분리/통합의 이중적 기능은 순결성과 모성성을 여성성으로 규정하는 전통적인 윤리관을 해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육체적 순결이 정신적 순결로 대체되는 순간 순결에 대한 성적 규제가 느슨해지는 부수적 기능을 수반한다. 이처럼 1970년대 대중소설은 순결 이데올로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그 의미 내용을 역전시키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여자의 전성시대」는 성적으로 타락한 주인공을 배제하는 방법으로 타협적 균형을 모색한다. 산업사회에서 성이란 일부일처제, 가부장적인 가족 틀 안에서 형성되고, 문명화된 사회 관계를 지속시키는 힘이며 그 조건이기 때문에,<sup>38)</sup> 그런 문명화된 사회 관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여자는 그 문명권 밖으로 배제된다. 외형적으로 이런 결말 구조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동조하여 창녀를 배제하는 방법으로 비쳐진다. 그러나 심층적

38) 조해일, 『겨울여자』(1975년 『중앙일보』 연재), 상 하권(술출판사, 1996)

39) 문명의 억압적 성격은 본능의 승화가 아니라 성적 관계의 배타성과 관련이 있다.(지그문트 프로이트(김석희 역), 『문명 속의 불만』(열린책들, 1998)) 그러나 푸코는 프로이트의 이론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성적 배타성이 생산되는 권력-지식 체계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복시키려는 권력-지식 체계의 등장에도 주목한다.

차원에서 볼 때 이 소설은 그런 사회적 관습에 대한 반란의 의미가 숨겨져 있는 공간이다. 영자의 처참한 죽음은 남성의 부끄러움과 죄의식을 은폐하려는 시도에 대한 반란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그녀의 죽음은 사회적 관습에 의해서 배제된 자의 종말이지만, 실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모순을 폭로하는 지점이 된다. 그녀의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은 화재이지만, 더 근원적인 원인은 여성을 대상화하려는 남성의 폭력 성향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오직 “배불리 먹어 보기 위해서” 서울로 와서 식모살이를 했는데 “하룻밤은 주인놈이 덤벼들면 다음 날은 꼭지에 피도 안 마른 아들 녀석이” 덤벼들고 “대학생들을 하숙치는 집에도 좀 살아봤는데, 배웠다는 사람들이 이걸 뭐 더 악마구리떼”처럼 그녀를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취급하였다고 고백한다.<sup>40)</sup> 그녀의 육체는 약하고 상처받기 쉬운데,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만 취급하려는 남성에 의해서 그것이 마음대로 훼손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녀는 식모살이조차 제대로 할 수 없어 차장이 되었다가 한 팔을 잃고 나서 창녀가 되었던 것이다. 게다가 ‘살림집’을 마련하기 위해 의수를 끼고 매춘을 하는 기이한 풍경도 매춘 단속으로 중단해야만 했다. 매춘 단속은 창녀는 사회에서 뿌리 뽑힌 자이고 쫓겨난 자이므로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적 관습에 근거한다. 이러한 사회적 관습은 ‘외화 벌이’를 위해 국가적 사업으로 매춘을 공인해야 한다는 산업사회의 경제 논리와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때, 사회적 관습의 허위성은 폭로될 수 있다. 창녀에 대한 이중적 잣대의 공존하는 사회는 여성을 사물처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물체로 대상화하려는 남성의 일방적인 폭력 행사의 현장임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자의 죽음은 경제적으로 지위가 낮은 여성을 남성의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취급하고 창녀로 전락시키는 남성의 사회적 타락을 은폐하려는 시도이지만 심층적 차원에서 볼 때 그 은폐를 폭로하려는 시도이다. 이러한 관점에 볼 때 타협적 균형에 의해 수렴된 「영자의 전성시대」는 순결성과 관능미를 여성에게 강요하는 전통적인 윤리관이 해체될 가

40) 조선작, 「영자의 전성시대」(1973년 『세대』 게재, 본고의 텍스트는 1974년 민음사간), p.66.



능성을 지닌 새로운 문화적 경험 공간인 셈이다.<sup>41)</sup>

이상에서 살펴보았을 때, 1970년대 대중소설을 단지 호스티스 소설 내지 통속적인 소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재단하는 미학적 관점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대중소설을 대중소설 '안'에서 객관적으로 고찰해 볼 때, 1970년대 대중소설은 여성의 육체에 대한 사회적 인습에 얽매인 의식과 그것을 초월하려는 의식이 공존하는 공간임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그 공간이 타협적 균형에 의해서 조정되는 대중 서사 방식을 취하고 있는 지점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1970년대 대중소설처럼 타협적 균형의 원리가 대중 서사의 원리로 자리 잡을 때, 비록 대중소설이 통속성을 띤다 하더라도 그 의미를 단순화시킬 수는 없다.

■ 필자 : 연세대 강사

---

41) 미셸 푸코에 의하면, 1970년대 대중소설에서처럼 성의 억압에 관한 담론에는 반항, 약속된 자유라는 이율배반적인 담론이 개입될 수 있다. "성과 그것의 억압에 대해 말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결연한 위반의 태도 같은 것을 구성"하기 때문이다.(미셸 푸코, 앞의 책, p.27)

〈참고문헌〉

- M. Horkheimer und TH. W. Adorno(김유동 외역), 『계몽의 변증법』, 문예출판사, 1995.
- Slavoj i ek(이만우 역), 『향락의 전이』, 인간사랑, 2002.
- Umberto Eco(김운찬 역), 『소설 속의 독자』, 열린책들, 1996.
- 강현두 외, 『현대 대중문화의 형성』,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8.
- 김수용, 『예술의 자율성과 부정의 미학』,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8.
- 대중문학연구회 편, 『대중문학이란 무엇인가』, 평민사, 1995.
- 롤랑 바르트(이화여대 기호학연구소 역), 『현대의 신화』, 동문선, 1997.
- 미셸 푸코(이규현 역), 『성의 역사: 제 1권 앞의 의지』, 나남출판, 1995
- 박성봉, 『대중예술의 미학』, 동연출판사, 1995.
- 베에르 부르디외(최종철 역),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上, 下권, 새물결, 1996.
- 안토니오 그람시(이상훈 역), 『그람시의 옥중수고 II』, 거름, 1993.
- 앤소니 기든스(배은경 외역), 『현대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친밀성의 구조변동』, 새물결, 1999.
- 임영호 편역, 『스튜어트 홀의 문화이론』, 한나래, 1996.
- 차봉희 편저, 『수용미학』, 문학과지성사, 1985.

**Abstract**

Discourse on the Body in the 1970s' Popular Novels

Kim, Hyun-ju

This thesis is an attempt to view the popular novels in 1970s objectively. For that intention, this thesis takes an intrinsic approach rather than an extrinsic approach. This thesis is focused on the fact that the texts of the popular novels in 1970s functioned as the fields of interactions of text-production and text-reception rather than functioning as the fields of injection of dominant ideology. As a result, many of those texts were based on the principle of compromising balance; in those texts, the dominant ideology and resistant ideology conflicted and compromised.

As the patriarchal ideology and the structure of capitalism combined closer in 1970s, the popular novels in 1970s objectified the body of woman and dealt with sex more often. As a result, the texts of the popular novels in 1970s turned themselves into the fields of new cultural experiences in which readers of those texts enjoyed sexual amusement of seeing woman's sexual body along with the excitement of being seen (by someone). By taking a common narrative of the popular novels, those texts effectively made their readers strengthen this kind of amusement and excitement; by making them feel free of 'pleasure anxiety' by social customs. The popular novels in 1970s took the principle of compromising balance as the principle of the narrative. For example, by

making ruined women such as prostitutes who don't follow the social customs sacred or by excluding them, the popular novels in 1970s developed the way of, so called 'compromising balance'. By this, those texts turned themselves into fields of cultural experiences where the patriarchal ideology got stronger. At the same time, readers experienced the possibility that they could overcome the patriarchy and conservative traditional ethics both of which had been prohibiting the release of sexual energy into the fields of public discourse.

**key word** : body, pleasure anxiety, repetition, compromising balance, field of cultural experiences

▶ 위 논문은 10월 15일 투고 완료, 10월 30일 심사 완료, 11월 15일 게재 확정